

포스트 코로나(Post-Corona) 시대에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요인

조아영¹ · 제남주²

¹창신대학교, 석사 · ²창신대학교, 부교수

Factors Influencing on Nursing Profession of Nursing Students in the
Post-Corona Era

A Young, Jo¹ · Nam Joo, Je²

¹*Changshin University, Master of Nursing*

²*Changshin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한국간호연구학회지 『별책』 제7권 제2호 2023년 6월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Research

Vol. 7, No. 2, June. 2023

포스트 코로나(Post-Corona) 시대에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요인

조아영¹ · 제남주²

¹창신대학교, 석사 · ²창신대학교, 부교수

Factors Influencing on Nursing Profession of Nursing Students in the Post-Corona Era

A Young, Jo¹ · Nam Joo, Je²

¹Changshin University, Master of Nursing

²Changshin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Abstract

Purpose :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academic stress, ego-resilience, and grit on the perceptions of the nursing profession among nursing students who have undergone clinical training following the COVID-19 pandemic outbreak. **Method** : Employing a descriptive research design, data were collected from 177 nursing students across three universities in City C, Gyeongsangnam-do between October 11 and October 17, 2022. The gathered data were analyzed using IBM SPSS/WIN 21.0. **Results** : The factors significantly influencing participants' perceptions of the nursing profession included ego-resilience ($\beta = .404$), being a junior student ($\beta = .206$), and the intention to work as a nursing practitioner in a hospital setting upon graduation ($\beta = .192$). The combined explanatory power of these variables was 37.2% ($F = 9.01$, $p < .001$, $R^2 = .418$, Adj. $R^2 = .372$). **Conclusion** : The findings underscore the importance of fostering ego-resilience and enhancing understanding of the nursing profession through a systematic curriculum in the post-COVID-19 era. Establishing an accurate perception of the nursing profession will aid nursing students in improving their professional competency and commitment.

Key words : Professionalism, COVID-19, Pandemics, Nursing education research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간호사는 인류에 대한 봉사와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대상자에게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한다는 전문직관을 가지고 있다[1]. 간호전문직관은 COVID-19의 범유행으로 인해 힘든 상황 속에서 간호사를 버틸 수 있게 하는 힘이 되었다[2]. 이러한 간호전문직관은 단시일 내 형성되기 어려우므로, 예비간호사인 간호대학생 시기부터 이에 대한 교육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3].

COVID-19의 출현은 간호교육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론교육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대면수업에서 주로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되었으며, 학습관리시스템(Learning Management System, LMS), 인터넷 플랫폼 등을 기반으로 한 동영상 녹화강의, 실시간 화상강의, 과제물 중심의 토의, 발표를 통한 실시간 수업 등으로 이루어졌다[4]. 또한 실습교육에도 영향을 미쳐 간호교육인증평가 기준에 따라 임상 현장에서 1000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하는 임상실습이 실습지인 병원 방역 정책에 따라 불가능하게 되면서 교내실습 또는 온라인 실습교육으로 대체되는 상황에 이르렀다[5]. 이같이 임상실습의 기회가 감소한 것은 간호대학생이 간호사로서의 기본 역량을 개발하고 간호전문직관을 형성하는데 방해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간호대학생은 많은 양의 전공과목을 이수해야 하고,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학문을 공부함에 있어 높은 수준의 학업스트레스를 경험하는데, COVID-19로 인해 새로운 교육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과업이 추가되어 심리적으로 더 큰 스트레스에 직면하게 되었다[6]. 학업스트레스는 학생들에게 심리적 부담, 긴장, 우울, 초조함 등의 심리적 장애를 유발하여 학습의 방해요인으로 작용하므로[7], 전공 교육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간호전문직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3].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와 간호전문직관의 관계를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간호대학생은 대중매체를 통해 COVID-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고생하는 간호사에 대한 자부심과 존경 등의 긍정적인 측면과 소진, 부적절한 대우 등의 부정적인 측면을 접하면서 간호전문직관의 변화를 겪었을 것으로 예상된다[8]. COVID-19 이전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확인된 변수로 자아탄력성(Ego-Resilience)이 있다[9,10]. 자아탄력성은 상황적 요구들이 변하거나 스트레스를 주는 환경에 처했을 때 적절한 자아통제력을 발휘하여 유연하게 적응하고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다[11]. COVID-19로 인한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의 변화가 예상되며, 자아탄력성은 COVID-19 이전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므로, COVID-19 이후에도 자아탄력성이 간호전문직관에 유의한 변수로 작용하는지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

그릿(Grit)이란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역경과 실패를 이겨내는 지속적인 열정을 뜻하며, 여러 분야에서 탁월한 성공을 이룬 사람들의 공통 특성으로 연구된 결과이다[12].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그릿은 스트레스[13]와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자아탄력성[14], 간호전문직관[13]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들 변수의 관련성은 간호대학생이 간호전문직관을 증진시키는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며, 바람직한 간호전문직관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COVID-19로 인해 마음껏 누려야 할 대학 캠퍼스 생활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한 간호대학생들에게 학업 스트레스, 자아탄력성, 그릿이 간호전문직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 COVID-19 이전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선행연구와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간호전문직관은 간호사에 대한 신념과 관념, 이미지의 총합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전문직으로서의 간호에 대한 체계적인 견해를 의미하며,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립한다면 개인적 만족은 물론, 대중으로부터 간호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개념이다[1]. 간호전문직관은 대학생 시기에 이론, 실습 전공교과목을 통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에 의해 습득되어 향후 임상실무에서 간호사의 전문직관으로 이어지게 되므로[3], 간호대학생 시기에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간호전

문직관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행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은 COVID-19를 위험하다고 인식하였으며[15], Park 등[16]의 연구에서는 팬데믹(Pandemic) 상황에서 간호사에 대한 신념이나 느낌이 부정적인 경우 간호전문직관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Lee와 Lim[17]의 연구에서는 COVID-19 유행 상황 시 첫 임상실습 이후에 임상실습 전보다 간호사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이 유의하게 높아진 결과를 보였다. 간호전문직관은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으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향후 COVID-19와 같은 새로운 감염성 질환은 계속 발생할 것이고, 이러한 재난상황에서 간호사의 역할은 더욱 커지고 중요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COVID-19 이후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향상시키는 전략 마련을 통해 간호대학생이 올바른 간호전문직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포스트 코로나(Post-Corona) 시대에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 자아탄력성, 그리고 간호전문직관의 관계를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이 올바른 간호전문직관을 정립하고 간호전문직관을 높이기 위한 전략 마련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포스트 코로나(Post-Corona) 시대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 자아탄력성, 그리고 간호전문직관 정도와, 이들 간의 관계 및 간호전문직관의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의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 형성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 자아탄력성, 그리고, 간호전문직관 수준을 파악한다.
-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스트레스, 자아탄력성, 그리고, 간호전문직관의 차이를 파악한다.
- 3) 학업스트레스, 자아탄력성, 그리고, 간호전문직관의 관계를 파악한다.
- 4)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포스트 코로나(Post-Corona) 시대에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 자아탄력성, 그리고 간호전문직관의 수준 및 관계를 파악하고,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 연구대상자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G도 C시에 소재하고 있는 3개의 대학교를 편의표출 하여, 재학중인 간호대학생 중 COVID-19 이후 임상실습을 경험한 3, 4학년(2022년 기준)을 대상으로 하였다. G-power 3.1.9.7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중간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90, 예측변수를 11개로 하였을 때 회귀분석에 필요한 최소표본은 152명이었다. 탈락률 20%를 고려하여 총 184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불성실 응답을 제외한 총 177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수집은 2022년 10월 11일부터 17일까지 진행하였다. 연구 목적과 연구 방법 등을 설명하여,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3. 연구도구

1) 학업스트레스

학업스트레스는 Bak과 Park[7]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발한 도구를 Lee와 Park[18]이 대학생에 맞게 수정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대학생은 중고등학생 시기와 달리 부모, 교사의 영향보다는 본인이 느끼는 바에 따라 학업스트레스의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 원천 영역만을 사용하였다[18]. 도구는 총 15문항이며, 각 문항은 6점 Likert 척도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α 는 .83이었으며, Lee와 Park[18]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5였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는 .89였다.

2) 자아탄력성

Lee와 Kim[11]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자아탄력성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긍정적 사고, 정서조절, 목표지향성, 의사소통방식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총 32문항이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α 는 .8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는 .87이었다.

3) 그릿

그릿은 국외에서 Duckworth와 Quinn[12]이 개발한 그릿척도(Original Grit Scale; Grit-O)를 Lee와 Sohn[19]이 한국어로 변안,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지속적인 관심, 끈기있는 노력 2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총 12문항이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그릿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α 는 .73~.83이었으며, Lee와 Sohn[19]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는 .79였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는 .70이었다.

4) 간호전문직관

간호전문직관은 Yeun 등[1]이 간호사를 대상으로 개발한 간호전문직관 측정도구를 Lee[20]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Yeun 등[1]이 개발한 도구의 29문항 중 간호대학생이 이해하기에는 어렵거나 의미를 다르게 해석할 가능성이 있는 세 개의 문항이 제외되어 총 26문항이다[20]. 본 도구는 전문직 자아개념, 사회적 인식, 간호의 전문성, 간호역할, 간호의 독자성 5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시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92이었으며, Lee[20]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는 .91이었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는 .91이었다.

4. 윤리적 고려

연구 진행 전 C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CSIRB-Y2022014). 연구대상자 모집 시 연구자가 편의 표출한 3개 대학교 간호학과 학과장에게 동의를 구하였다. 연구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연구목적 및 연구 참여 방법을 설명하였다. 자발적인 참여와 중도 철회가 가능하며, 대상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는 일련의 번호체제로 정리하여 익명으로 처리되므로 비밀이 보장됨을 안내하였다. 수집된 대상자의 모든 정보는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 및 분석 후에 암호화된 금고에 보관하였으며, 보관기간이 끝나면 폐기할 것이다. 수집 자료는 오직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이며 그 결과는 학술지에 출판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연구 참여 설명 후 자발적 동의에 따라 서면 동의를 받았으며, 설문조사를 완료한 대상자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WIN 21.0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학업스트레스, 자아탄력성, 그릿, 간호전문직관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각 변수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Scheffe's test로 분석하였다. 각 변수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analysis)으로 분석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성별은 '여자'가 149명(84.2%)이었다. 연령은 평균 25.13세였다. 학년은 '3학년'이 95명(53.7%)이었다. 종교 유무는 '없음'이 123명(69.5%)이었다. 성격

은 외향적과 내성적의 ‘혼합적’이 99명(55.9%)이었다. 대인관계는 ‘좋음’이 108명(61.0%)이었다. 주관적 건강 상태는 ‘좋음’이 96명(54.2%)이었다. 직전 학기 평균 학점은 ‘3.5~4.0 미만’이 74명(41.8%)이었다. 전공에 대한 적성 또는 흥미는 ‘아니오’가 119명(67.2%)이었다. 가족 중 간호사 여부는 ‘없다’가 123명(69.5%)이었

다. 희망 근무 형태는 ‘병원 임상간호사’가 135명(76.3%)이었다. 전공 만족도는 ‘보통 또는 낮음’이 91명(51.4%)이었다. 임상실습 만족도는 ‘보통 또는 낮음’이 94명(53.1%)이었다. 코로나19 확진 경험은 ‘있다’가 102명(57.6%)이었다. 코로나19 이후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 변화는 ‘긍정적’이 168명(94.9%)이었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 = 177)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ean±SD	Range
Gender	Male	28	15,8		
	Female	149	84,2		
Age	22years	56	31,6	25,13±6,26	22-55
	23years	52	29,4		
	24years or older	69	39,0		
School year	Junior	95	53,7		
	Senior	82	46,3		
Religion	Yes	54	30,5		
	No	123	69,5		
Personality traits	Extrovert	32	18,1		
	Mixed	99	55,9		
	Introvert	46	26,0		
Interpersonal relationship	Good	108	61,0		
	Neutral	69	39,0		
Perceived health status	Good	96	54,2		
	Neutral or Bad	81	45,8		
Average grade for the previous semester	<3,5	64	36,2		
	3,5~4,0	74	41,8		
	≥4,0	39	22,0		
Aptitude or interest in a major	Yes	58	32,8		
	No	119	67,2		
Presence of nurse among family	Yes	54	30,5		
	No	123	69,5		
Desired place for job	Hospital	135	76,3		
	Public health	23	13,0		
	Other	19	10,7		
Major satisfaction	Satisfied	86	48,6		
	Neutral or Dissatisfied	91	51,4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Satisfied	83	46,9		
	Neutral or Dissatisfied	94	53,1		
Experience of COVID-19 infection	Yes	102	57,6		
	No	75	42,4		
Change of impression about nurses during COVID-19 pandemic	Positive	168	94,9		
	Negative	9	5,1		

2. 학업스트레스, 자아탄력성, 그릿 및 간호전문직관

대상자의 학업스트레스는 평균평점 3.37 ± 0.82 (6점 만점)이었으며, 하위영역은 ‘성적영역’ 3.86 ± 1.08 점, ‘공부영역’ 3.58 ± 0.99 점, ‘수업영역’ 2.68 ± 0.96 점 순이었다. 자아탄력성은 평균평점 3.86 ± 0.41 점(5점 만점)이었으며, 하위영역은 ‘의사소통방식’ 4.12 ± 0.55 점, ‘긍정적 사고’ 3.97 ± 0.52 점, ‘정서조절’ 3.75 ± 0.64 점, ‘목표지향성’ 3.58 ± 0.68 점 순이었다. 그릿은 평균평점 3.17 ± 0.47 점(5점 만점)이었으며, 하위영역은 ‘끈기있는 노력’이 3.46 ± 0.60 점, ‘지속적인 관심’ 2.88 ± 0.60 점이었다. 간호전문직관은 평균평점 3.92 ± 0.44 점(5점 만점)이었으며, 하위영역은 ‘간호의 전문성’ 4.28 ± 0.55 점, ‘간호역할’ 4.16 ± 0.62 점, ‘전문직 자아개념’ 4.08 ± 0.47 점, ‘간호의 독자성’ 3.59 ± 0.77 점, ‘사회적 인식’ 3.55 ± 0.59 점 순이었다(Table 2).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스트레스, 자아탄력성, 그릿 및 간호전문직관의 차이

학업스트레스는 ‘학년’($t=2.95, p=.004$), ‘대인관계’($t=-2.31, p=.022$), ‘주관적 건강상태’($t=-2.64, p=.009$), ‘전공 만족도’($t=-5.44, p<.001$), ‘임상실습 만족도’($t=-3.42,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3학년’이 ‘4학년’보다, ‘대인관계’ ‘보통’이 ‘ 좋음’보다, ‘주관적 건강상태’ ‘보통 또는 나쁨’이 ‘ 좋음’보다, ‘전공만족도’ ‘보통 또는 낮음’이 ‘ 높음’보다, ‘임상실습만족도’ ‘보통 또는 낮음’이 ‘ 높음’보다 학업스트레스가 높았다.

자아탄력성은 ‘종교 유무’($t=-2.60, p=.010$), ‘성격’($F=4.87, p=.009$), ‘대인관계’($t=4.32, p<.001$), ‘주관적 건강상태’($t=2.45, p=.015$), ‘희망 근무 형태’($F=7.81, p=.001$), ‘전공만족도’($t=5.04, p<.001$), ‘임상실습 만

Table 2. Academic Stress, Ego-Resilience, Grit and Views on Nursing Profession

(N = 177)

Variables	n	Mean \pm SD	Range	Min	Max
Academic stress					
Grade	5	3.86 ± 1.08	1-6	1.00	6.00
Class-taking	5	2.68 ± 0.96		1.00	6.00
Studying	5	3.58 ± 0.99		1.00	6.00
Total	15	3.37 ± 0.82			
Ego-resilience					
Positive thinking	10	3.97 ± 0.52	1-5	2.20	5.00
Emotion regulation	10	3.75 ± 0.64		1.50	5.00
Goal-orienting	6	3.58 ± 0.68		1.67	5.00
Communication	6	4.12 ± 0.55		2.17	5.00
Total	32	3.86 ± 0.41			
Grit					
Consistency of interest	6	2.88 ± 0.60	1-5	1.33	4.67
Perseverance of effort	6	3.46 ± 0.60		1.83	4.83
Total	12	3.17 ± 0.47			
Views on nursing profession					
Self-concept of the profession	9	4.08 ± 0.47	1-5	2.13	5.00
Social awareness	8	3.55 ± 0.59		2.50	5.00
Professionalism of nursing	4	4.28 ± 0.55		2.50	5.00
The roles of nursing service	3	4.16 ± 0.62		2.33	5.00
Originality of nursing	2	3.59 ± 0.77		1.50	5.00
Total	26	3.92 ± 0.44			

족도'(t=4.54, $p<.001$), '코로나19 이후 간호사에 대한 인상 변화'(t=2.60, $p=.010$)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종교 유무'는 '없음'이 '있음'보다 자아탄력성이 높았다. '성격'은 사후검정 결과 '외향적'이 '내성적'보다 자아탄력성이 높았다. '대인관계'는 '좋음'이 '보통'보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좋음'이 '보통 또는 나쁨'보다 자아탄력성이 높았다. '희망근무형태'는 사후검정 결과 '병원 임상간호사'가 '공무원'보다 자아탄력성이 높았다. '전공만족도'는 '높음'이 '보통 또는 낮음'보다, '임상실습 만족도'는 '높음'이 '보통 또는 낮음'보다, '코로나19 이후 간호사에 대한 인상 변화'는 '긍정적'이 '부정적'보다 자아탄력성이 높았다.

그릿은 '대인관계'(t=2.27, $p=.025$), '전공 만족도'(t=5.39, $p<.001$), '임상실습 만족도'(t=4.56,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인관계'는 '좋음'이 '보통'보다, '전공만족도'는 '높음'이 '보통 또는 낮음'보다, '임상실습 만족도'는 '높음'이 '보통 또는 낮음'보다 그릿이 높았다.

간호전문직관은 '연령'(F=7.11, $p=.001$), '학년'(t=1.98, $p=.049$), '성격'(F=3.40, $p=.036$), '대인관계'(t=3.13, $p=.002$), '전공에 대한 적성 또는 흥미'(t=2.18, $p=.031$), '희망 근무 형태'(F=10.58, $p<.001$), '전공 만족도'(t=4.84, $p<.001$), '임상실습 만족도'(t=5.37,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연령'은 사후검정 결과 '22세'가 '23세'와 '24세 이상'보다 간호전문직관이 높았다. 또한 '3학년'이 '4학년'보다 간호전문직관이 높았다. '성격'은 사후검정 결과 '외향적'이 '내성적'보다 간호전문직관이 높았다. '대인관계'는 '좋음'이 '보통'보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좋음'이 '보통 또는 나쁨'보다, '전공에 대한 적성 또는 흥미'는 '예'가 '아니오'보다 간호전문직관이 높았다. '희망 근무 형태'는 사후검정 결과 '병원 임상간호사'와 '기타'가 '공무원'보다 간호전문직관이 높았다. '전공만족도'는 '높음'이 '보통 또는 낮음'보다, '임상실습 만족도'는 '높음'이 '보통 또는 낮음'보다 간호전문직관이 높았다(Table 3).

Table 3. Differences of Academic Stress, Ego-Resilience, Grit, and Views on Nursing Profession by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 = 177)

Characteristics	Categories	Academic stress			Ego-resilience			Grit			Views on nursing profession		
		Mean±SD	t or F	p	Mean±SD	t or F	p	Mean±SD	t or F	p	Mean±SD	t or F	p
Gender	Male	3.20±0.95	-1.24	.217	3.79±0.45	-0.88	.381	3.16±0.46	-0.07	.948	3.92±0.50	0.00	.998
	Female	3.40±0.79			3.87±0.41			3.17±0.47			3.92±0.42		
Age	22 years ^a	3.48±0.84	2.15	.120	3.91±0.43	1.85	.161	3.20±0.50	0.24	.785	4.09±0.42	7.11	.001
	23 years ^b	3.47±0.80			3.90±0.39			3.13±0.43			3.88±0.34		a>b,c*
	24 years or older ^c	3.21±0.81			3.78±0.41			3.18±0.48			3.81±0.47		
School year	Junior	3.54±0.87	2.95	.004	3.81±0.43	-1.51	.134	3.15±0.45	-0.47	.638	3.98±0.45	1.98	.049
	Senior	3.18±0.73			3.91±0.39			3.19±0.49			3.85±0.41		
Religion	Yes	3.43±0.92	0.64	.524	3.74±0.42	-2.60	.010	3.12±0.40	-1.09	.279	3.84±0.40	-1.71	.090
	No	3.35±0.78			3.91±0.40			3.19±0.50			3.96±0.45		
Personality traits	Extrovert ^a	3.19±0.87	2.33	.100	3.99±0.36	4.87	.009	3.34±0.50	2.94	.056	4.06±0.42	3.40	.036
	Mixed ^b	3.33±0.83			3.88±0.41		a>c*	3.15±0.46			3.93±0.43		a>c*
	Introvert ^c	3.58±0.75			3.71±0.43			3.09±0.45			3.09±0.47		
Interpersonal relationship	Good	3.26±0.82	-2.31	.022	3.96±0.37	4.32	<.001	3.23±0.48	2.27	.025	4.00±0.44	3.13	.002
	Neutral	3.55±0.80			3.70±0.42			3.07±0.45			3.80±0.41		
Perceived health status	Good	3.22±0.80	-2.64	.009	3.93±0.39	2.45	.015	3.20±0.46	0.92	.360	3.98±0.46	1.90	.059
	Neutral or Bad	3.55±0.82			3.77±0.43			3.13±0.48			3.86±0.39		
Average grade for the previous semester	<3.5	3.50±0.85	2.97	.054	3.82±0.40	1.89	.154	3.15±0.44	0.74	.478	3.90±0.42	0.39	.675
	3.5~4.0	3.40±0.77			3.83±0.42			3.15±0.47			3.91±0.44		
	≥4.0	3.10±0.82			3.97±0.41			3.25±0.52			3.98±0.47		
Aptitude or interest in a major	Yes	3.30±0.72	-0.81	.421	3.94±0.36	1.86	.065	3.24±0.43	1.49	.137	4.02±0.43	2.18	.031
	No	3.40±0.87			3.82±0.48			3.13±0.48			3.87±0.43		

*Scheffe test

(Table continued)

Table 3. (continued)

Characteristics	Categories	Academic stress			Ego-resilience			Grit			Views on nursing profession		
		Mean±SD	t or F	p	Mean±SD	t or F	p	Mean±SD	t or F	p	Mean±SD	t or F	p
Presence of nurse among family	Yes	3.32±0.83	-0.58	.563	3.87±0.38	0.26	.796	3.22±0.52	1.00	.319	3.92±0.49	0.06	.953
	No	3.39±0.82			3.85±0.43			3.15±0.45			3.92±0.41		
Desired place for job	Hospital ^a	3.32±0.78	1.42	.244	3.92±0.38	7.81	.001	3.20±0.45	1.83	.164	3.99±0.39	10.58	<.001
	Public health ^b	3.51±0.84			3.58±0.47		a>b*	3.00±0.51			3.56±0.51		a,c>b*
	Other ^c	3.61±1.06			3.74±0.42			3.15±0.51			3.89±0.45		
Major satisfaction	Satisfied	3.05±0.73	-5.44	<.001	4.01±0.35	5.04	<.001	3.35±0.44	5.39	<.001	4.08±0.41	4.84	<.001
	Neutral or Dissatisfied	3.67±0.79			3.71±0.41			3.00±0.44			3.78±0.41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Satisfied	3.15±0.76	-3.42	<.001	4.00±0.31	4.54	<.001	3.33±0.41	4.56	<.001	4.10±0.40	5.37	<.001
	Neutral or Dissatisfied	3.56±0.83			3.73±0.45			3.03±0.47			3.77±0.41		
Experience of COVID-19 infection	Yes	3.32±0.78	-1.05	.294	3.86±0.40	0.28	.779	3.20±0.46	1.11	.268	3.92±0.45	-0.12	.905
	No	3.45±0.87			3.85±0.43			3.12±0.48			3.93±0.42		
Change in impression about nurse during COVID-19 pandemic	Positive	3.35±0.82	-1.47	.142	3.87±0.40	2.60	.010	3.18±0.46	1.79	.076	3.94±0.42	1.94	.054
	Negative	3.76±0.81			3.51±0.52			2.90±0.62			3.65±0.64		

*Scheffe test

4. 학업스트레스, 자아탄력성, 그릿과 간호전문직관의 상관관계

학업스트레스는 간호전문직관($r=-.17, p=.021$)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자아탄력성은 간호전문직관($r=.53, p<.001$)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학업스트레스($r=-.50, p<.001$)와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그릿은 간호전문직관($r=.42, p<.001$)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학업스트레스($r=-.43, p<.001$)와 부적 상관관계, 자아탄력성($r=.65, p<.001$)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Table 4).

5.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요인

대상자의 학업스트레스, 자아탄력성, 그릿이 간호

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전 Durbin-Watson 값은 2.25로 2에 근접하여 오차항들간 자기 상관은 없었고, 공차한계는 0.43~0.93으로 모두 0.1 이상이었으며,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1.12~2.33으로 10을 넘지 않아 변수들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1단계 위계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2단계 위계에서는 학업스트레스, 자아탄력성, 그릿을 투입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델 1에는 선행연구[21,22]와 본 연구에서 일반적 특성 중 간호전문직관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연령, 학년, 성격, 대인관계, 전공에 대한 적성 또는 흥미, 희망 근무 형태, 전공 만족도, 임상실습 만족도를 투입하였다. 일반적 특성 중 연령을 제외한 명목변수 7개는 더

Table 4. Correlation between academic stress, grit, ego-resilience, views on nursing profession

(N = 177)

	Views on nursing profession $r(p)$	Academic stress $r(p)$	Ego-resilience $r(p)$
Academic stress	-.17(.021)	1	
Ego-resilience	.53(<.001)	-.50(<.001)	1
Grit	.42(<.001)	-.43(<.001)	.65(<.001)

미 변수 처리하여 투입하였다. 그 결과 4학년에 비해서 3학년($\beta = .190, p = .006$)이, 희망 근무 형태가 공무원인 경우에 비해서 병원 임상간호사($\beta = .271, p = .003$)인 경우와 기타($\beta = .194, p = .026$)인 경우가, 임상실습 만족도가 보통이거나 낮은 경우에 비해서 높은($\beta = .196, p = .020$) 경우가 간호전문직관을 설명하는 유의한 예측요인으로 나타났다. ‘희망 근무 형태가 병원 임상간호사인 경우’,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은 경우’, ‘희망 근무 형태가 병원 임상간호사나 공무원 외 다른 형태인 경우’, ‘3학년’ 순으로 유의하였다. 모델 1의 적합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설명력은 23.0%였다($F = 6.26, p < .001$).

모델 2에서는 간호전문직관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학업스트레스, 자아탄력성, 그릿을 위계로 투입하였다. 그 결과 4학년에 비해서 3학년($\beta = .206, p = .001$)이, 희망 근무 형태가 공무원인 경우에 비해서 병원 임상간호사($\beta = .192, p = .025$)인 경우, 그리고 자아탄력성($\beta = .404, p < .001$)이 간호전문직관을 설명하는 유의한 예측요인으로 나타났다. 자아탄력성이 간호전문직관을 가장 잘 예측하는 요인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 ‘3학년’, ‘희망 근무 형태가 병원 임상간호사’인 경우 순이었다. 모델의 설명력은 37.2%로 모델 1에 비해 14.4% point 증가하였고, 모델적합도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 = 9.01, p < .001$)(Table 5).

Table 5. Influencing factors on views of nursing profession of participants

(N = 177)

	Model 1					Model 2				
	B	*SE	β	t	p	B	*SE	β	t	p
(Constant)	3,479	.164		21.16	.000	1,445	.416		3.47	.001
Age	-.006	.005	-.082	-1.17	.243	-.003	.005	-.036	-.56	.578
School year (ref. = Senior)										
Junior	.165	.060	.190	2.77	.006	.179	.055	.206	3.24	.001
Personality traits (ref. = Introvert)										
Extrovert	.101	.099	.090	1.02	.308	.073	.090	.064	.81	.420
Mixed	.054	.071	.061	.75	.454	.030	.065	.034	.46	.647
Interpersonal relationship (ref. = Neutral)										
Good	.090	.065	.101	1.38	.169	.022	.060	.024	.36	.720
Aptitude or interest in a major (ref. = No)										
Yes	.030	.065	.032	.46	.648	.026	.059	.028	.43	.666
Desired place for job (ref. = Public health)										
Hospital	.277	.093	.271	2.98	.003	.196	.086	.192	2.27	.025
Other	.272	.121	.194	2.24	.026	.215	.111	.153	1.94	.054
Major satisfaction (ref. = Neutral or dissatisfied)										
Satisfied	.130	.075	.150	1.74	.085	.065	.071	.075	.91	.363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ref. = Neutral or dissatisfied)										
Satisfied	.171	.073	.196	2.35	.020	.126	.066	.145	1.90	.059
Academic stress						.058	.040	.109	1.44	.153
Ego-resilience						.426	.096	.404	4.43	<.001
Grit						.092	.078	.099	1.18	.239
Adj. R ²			.230					.372		
R ²			.274					.418		
ΔR^2			-					.144		
F(p)			6.26(<.001)					9.01(<.001)		
$\Delta F(p)$			-					13.46(<.001)		

Durbin-Watson = 2.25, VIF = 1.12-2.33, Tolerance = 0.43-0.93

*SE: Standard Error

IV. 논 의

본 연구는 포스트 코로나(Post-Corona) 시대에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 자아탄력성, 그것이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이며, 간호대학생이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을 형성하고 시대에 알맞는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 결과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는 3.37점(6점 만점)이었다. 도구가 달라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COVID-19 전 Bak과 Park[7]의 도구로 3, 4학년을 대상으로 한 Seo와 Oh[23]의 연구에서는 2.68점(6점 만점)이었고, COVID-19로 인한 온라인 개학이 시작되는 시기에 자료수집을 한 Hong과 Han[24]의 연구에서는 4.45점(6점 만점)이었다. 본 연구 결과인 3.37점은 COVID-19 전 2.68점[23]보다는 높지만 비대면 수업이 막 시작되는 시기에 연구된 4.45점[24]보다 낮은 수준을 보인다. 본 연구에서 COVID-19 출현 초기에 비해 학업스트레스가 감소한 결과로 나타난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비대면 수업이 안정화되고 학생들도 수업방식에 점차 적응하였기 때문으로 유추된다. 하위영역은 성적 영역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수업영역이 가장 낮게 나타나 선행연구와 유사하였다[23]. 이는 향후 입사하고자 하는 병원을 선택하는 데 있어 성적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성적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스트레스는 3학년이 4학년보다 높게 나타나 선행연구의 결과와 유사하였다[23]. 이는 3학년 때 임상실습이 시작되고 전공과목의 심화과정이 시작되어 부담을 느껴 학업스트레스가 증가하였으나, 4학년 때는 많은 공부량에 익숙해지고 전공과정에 적응하여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대인관계가 좋은 경우 학업스트레스가 낮은 수준을 보였다. 대인관계가 좋은 학생은 공부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를 친구들과의 수다로 풀거나, 어려운 부분에 대한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하면서 함께 해결하기 때문에 학업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대인관계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상담 프로그

램을 운영한다면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은 경우 학업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으면 건강관리에 대한 부담이 적고, 스스로 체력이 뒷받침된다고 판단하여 힘든 공부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학업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건강상태를 높이기 위해 건강정보 이해 능력을 증진시키는 헬스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25]을 적용한다면 학업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전공 만족도가 높은 경우 학업스트레스가 낮았는데, 이는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였다[23]. 전공 교육 과정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면 스스로 잘 해내고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며 불안감이 감소하여 학업스트레스 또한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은 경우 학업스트레스가 낮았다. 임상실습은 학교에서 배운 이론 지식이 환자에게 실질적인 간호로 제공되는 것을 경험하는 과정으로,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으면 전공 내용에 대한 이해가 쉬워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이를 통해 학업스트레스가 감소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간호전문직관은 임상실습을 포함한 전공 교과목을 수료하는 과정을 통해 형성되므로[3], 이러한 습득 과정의 만족도를 높여주고 학업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것은 간호전문직관의 형성을 용이하게 해줄 것이다.

본 연구 결과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은 3.86점(5점 만점)이었다. COVID-19 이후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를 이용하여 간호대학생 4학년을 대상으로 측정한 Kim과 Yoon[26]의 연구에서는 4.01점으로, 본 연구에서 측정된 4학년의 점수(3.91 ± 0.39)와 유사하였다. 자아탄력적인 사람은 효과적인 정서 조절 기제를 활용하여 스트레스 상황에서 빠르게 회복하며 긍정적인 의미를 찾아낸다[26]. 본 연구에서는 COVID-19 이후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인 경우 자아탄력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재난 상황에서 전문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환자를 간호하는 간호사의 이미지가 간호대학생에게 긍정적인 정서 조절 기제로 작용하여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본 연구에서 졸업 후 희

망하는 근무 형태가 병원 임상간호사인 경우에 자아탄력성이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탄력성은 성격이 외향적인 경우, 대인관계가 좋은 경우 높게 나타났다. 대인관계가 좋은 학생은 다른 사람과 대면할 때 정서를 조절하여 원활하게 의사소통하기 때문에 자아탄력성의 하위영역을 충족하여 이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은 경우 자아탄력성이 높았는데, 이는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면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헬스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25]을 적용한다면 주관적 건강 상태를 높임으로써 자아탄력성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희망 근무 형태에 따른 자아탄력성은 병원 임상간호사인 경우가 공무원인 경우보다 높았다. 팬데믹(Pandemic)으로 인해 보건소의 간호직 공무원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현 상황에서 공무원이 되길 희망하는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전공 만족도와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은 경우 자아탄력성이 높았다. 전공 과정과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면 전공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자아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Lee와 Kim[10]의 연구에서도 전공 만족과 좋은 대인관계가 학교생활을 만족시키고 성취감을 높임으로써 궁극적으로 자아탄력성을 높인 것으로 보았다.

본 연구 결과 간호대학생의 그릿은 3.17점(5점 만점)이었다. COVID-19 이전 선행연구에서 동일한 대상자의 그릿은 3.11점[13]으로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여, 그릿은 팬데믹(Pandemic)이라는 시대적 변화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그릿은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 전공 만족도, 임상실습 만족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그릿은 감염병 시대라는 환경적 요소보다는 개인의 특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 결과 팬데믹(Pandemic) 상황으로 인한 그릿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릿은 학업 성취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19], 간호대학생이 전공 과정을 습득하고 전문적인 간호사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릿의 하위영역은 ‘끈기있는 노력’이 ‘지속적인 관심’보다 높은 수치로 나타나 선행연구와 일치하였다[13]. ‘지속적인 관심’이 ‘끈기있는 노력’보다 낮은 이유에 대해 유아교육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릿 군집유형에 따른 성격 5요인의 차이를 분석한 선행연구를 참고하면, 정서적 불안정, 환경 민감성, 불안, 피로, 긴장 등의 신경증(neuroticism)이 높을수록 목표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하였다[27]. 따라서 간호대학생에게 심리적, 환경적, 신체적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는 중재를 적용한다면 전문직 간호직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높여주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릿은 대인관계가 좋은 경우 높게 나타났다. 대인관계가 좋은 학생은 목표를 향해 정진하는 과정에서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고 의지함으로써의 지속적인 관심과 끈기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받기 때문에 그릿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전공 만족도가 높은 경우 그릿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전공 교육 과정에 대해 만족하면 본인의 노력에 대한 성취감을 느끼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끈기를 가지게 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은 경우 그릿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간호대학생이 실제로 환자 간호를 경험하고 피드백을 받는 과정에서 간호행위가 익숙해지고 역량이 강화되어 간호학에 대한 흥미와 끈기가 높아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효율적인 임상실습 환경을 마련하고 실습 지도를 개선함으로써 임상실습 만족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간호대학생이 간호학에 대한 흥미와 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 결과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은 3.92점(5점 만점)이었다. 도구가 달라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Yeun 등[1]이 개발한 도구로 3, 4학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선행연구 중 COVID-19가 출현하기 전 자료수집을 한 연구에서는 3.69점(5점 만점)[13]으로 나타나, COVID-19로 인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본 연구에서 간호전문직관이 높은 수준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간호전문직관은 시대적 배경 뿐 아니라 개인별 특성과 여러 외부요인이 영향을 주는 변수이

므로 간호전문직관에 대해 더 풍부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련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 하위영역은 ‘간호의 전문성’이 가장 높고, ‘사회적 인식’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은 간호를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간호사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간호사의 사회적 지위와 인식은 팬데믹(Pandemic)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높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간호사의 근무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간호의 전문성이 인식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간호전문직관은 성격이 외향적인 경우, 대인관계가 좋은 경우 높았으며, 이는 Park 등[3]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간호전문직관은 봉사과 소명이라는 이타적 가치를 포함하므로[1], 타인에 대한 관심과 원만한 대인관계가 이러한 가치를 형성하기 위한 바탕이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전공에 대한 적성 또는 흥미가 있는 경우 간호전문직관이 높았으며, 이는 선행연구와 일맥상통한 결과이다[17]. 또한 전공 만족도와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은 경우 간호전문직관이 높았으며, 이는 선행연구들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3,13,14,16,17]. 이러한 결과들은 간호전문직관이 체계적인 교육과정에 의해 형성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학년이 진급되어도 간호학에 대한 적성과 흥미가 유지되도록 전공 만족도와 임상실습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

간호전문직관의 영향요인 분석 결과, 간호전문직관을 가장 잘 예측하는 요인은 자아탄력성이었다. 자아탄력성은 선행연구들[9,10]에서도 간호전문직관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를 통해 COVID-19 팬데믹(Pandemic) 이후에도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자아탄력성은 상황 변화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하고 역경에 대해서 건강한 방법으로 반응하는 능력이므로[11], 간호대학생이 포스트코로나(Post-Corona) 시대라는 변화한 환경에서 역경을 이겨내는 간호사의 모습을 보며 간호에 대한 신념과 견해를 형성하는데 자아탄력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에게 자아탄력성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을 적용한다면 간호전문직관을 발

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자아탄력성 프로그램은 대부분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유아교육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아탄력성 증진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낙관적 태도, 분노조절, 공감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었던 선례가 있다[28]. 간호학 전공 교육과정을 통해 자아탄력성의 하위영역인 ‘목표지향성’, ‘긍정적 사고’, ‘정서 조절’을 높여주고, ‘의사소통방식’을 발전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동아리 활동을 권유하는 등의 비교과 프로그램도 병행한다면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을 증진시키는 좋은 방안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 요인은 4학년에 비해서 3학년이었다. COVID-19 출현 이후 선행된 Kim 등[21]의 연구에서도 3학년이 4학년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원인에 대해 유추해보면, 임상실습 횟수가 많아질수록 간호사가 겪는 스트레스 상황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기회가 많아졌기 때문일 수 있다. Kim 등[21]의 연구에서는 COVID-19로 인해 교내 임상실습으로 대체됨에 따라 임상에 대한 현실성이 낮아져 간호사의 전문성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변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학년에 따른 차이의 원인이 꼭 임상실습만이라고 할 수는 없다. 간호교육을 통해 일차적으로 형성되는 간호전문직관이 교육을 더 많이 받은 4학년에서 더 낮아진 결과를 보였으므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심화되는 교과과정에서 원인을 찾을 수도 있다. 4학년은 졸업 후 곧 간호사가 되므로 간호전문직관을 더욱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각 학년마다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학년별 간호전문직관 증진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이렇게 형성된 간호전문직관이 향후 간호사의 간호전문직관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세 번째 요인은 졸업 후 희망 근무 형태가 공무원인 경우에 비해서 병원 임상간호사인 경우였다. 병원 임상간호사의 간호전문직관은 직접적 간호를 제공하는 실무현장에서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하게 하므로, COVID-19 감염병으로 인해 증가한 대상자의 요구와 과중한 업무 속에서 간호의

질을 유지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29]. 실제로 COVID-19 팬데믹(Pandemic) 상황에서 임상간호사의 간호전문직관이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30]. 이를 토대로 간호대학생들이 간호사가 되어 임상에 나갈 때까지 높은 간호전문직관을 유지하고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포스트 코로나(Post-Corona) 시대에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 자아탄력성, 그릇이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이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을 형성하고 시대에 알맞는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 결과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아탄력성, 4학년에 비해 3학년, 졸업 후 공무원을 희망하는 경우에 비해 병원 임상간호사를 희망하는 경우로 나타났으며 이들은 간호전문직관을 37.2%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 시절 4년 동안 체계적인 교육과정에 의해 간호전문직관을 정립해야 하며, 이때 자아탄력성을 높이는 프로그램과 학년별 간호전문직관 증진 프로그램을 병행한다면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렇게 형성된 간호전문직관이 향후 임상에서 간호사의 간호전문직관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본 연구는 포스트 코로나(Post-Corona)라는 시대적 상황 변화에서도 자아탄력성이 간호전문직관의 영향요인임을 확인함으로써 후속 연구를 위한 근거를 제시하였으며,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증진 프로그램 개발 시 어떤 변수를 증진시킬지 판단할 때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자아탄력성이 간호전문직관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추후 반복 연구를 통해 이러한 결과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년별 간호

전문직관 증진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위해 1학년부터 졸업학년까지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이 어떻게 변화하고 그 원인은 무엇인지 밝히는 종적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포스트 코로나(Post-Corona) 시대에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학업스트레스, 자아탄력성, 그릇 외 다른 변수를 포함한 심층적 후속연구를 제언한다. 넷째, 간호전문직관의 영향요인을 바탕으로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을 높이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에 대한 실험연구를 제언한다. 다섯째, 간호사를 대상으로 포스트 코로나(Post-Corona) 시대에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한 조사연구를 제언한다.

References

1. Yeun EJ, Kwon YM, Ahn OH. Development of a nursing professional values scal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05;35(6):1091-1100.
<https://doi.org/10.4040/jkan.2005.35.6.1091>
2. Jin DR, Lee GY. Experiences of nurses at a general hospital in Seoul which is temporarily closed due to COVID-19.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20;26(4):412-422.
<https://doi.org/10.5977/jkasne.2020.26.4.412>
3. Park HR, Jun HJ, Van MK. The effects of transitional shock and incivility experienced by nursing student on nursing professionalism.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2021;27(1):78-86.
<https://doi.org/10.14370/jewnr.2021.27.1.78>
4. Lee SY, Kim, JY. Growth mindset, grit an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of nursing students in online education. *Journal of the Korean Oil Chemists' Society*. 2021;38(2):567-578.
<https://doi.org/10.12925/jkocs.2021.38.2.567>
5. Kang JY. Simulated nursing practice education in the contact age: a mixed methods case study. *The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Learner-Centered Curriculum*

- and Instruction. 2020;20(18):937-957.
<https://doi.org/10.22251/jlcci.2020.20.18.937>
6. Kim JI. Relations between college life stress and life satisfaction among nursing students that had non-contact online course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21;22(5):361-370.
<https://doi.org/10.5762/KAIS.2021.22.5.361>
7. Bak BG, Park SM.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n academic stress scale.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012;26(2):563-585.
8. Park K, Jung M, Kim SH. Effects of resilience and nursing professionalism on clinical practice stress in the COVID-19 pandemic.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1. 2021;12(4):1361-1374.
<https://doi.org/10.22143/HSS21.12.4.97>
9. Park G, Kim HS. Relationship between nurse image ego-resilience and nursing professional values of nursing students.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2019(5):361-362.
10. Lee HN, Kim JH. The influencing factors of ego-resilience and empowerment on nursing professionalism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6;17(8):292-300.
<https://doi.org/10.5762/KAIS.2016.17.8.292>
11. Lee ES, Kim SH.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ego-resilience scale for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2012;13(6):3077-3094.
<https://doi.org/10.15703/kjc.13.6.201212.3077>
12. Duckworth AL, Quinn PD.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hort grit scale (Grit-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2009;91(2):166-174.
<https://doi.org/10.1080/00223890802634290>
13. Lee IS, Jeon MK, Lee MY. Stress, grit, and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Muscle and Joint Health*. 2020;27(3):298-306.
<https://doi.org/10.5953/JMJH.2020.27.3.298>
14. Suh MO. The mediating effect of ego-resilien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students' grit and career identity.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20;20(21):729-750.
<https://doi.org/10.22251/jlcci.2020.20.21.729>
15. Park JH, Kim JH, Lee HJ, Kang PR. The relationship of anxiety, risk perception, literacy, and compliance of preventive behaviors during COVID-19 pandemic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Applied Science and Technology*. 2021;38(1):48-59.
<https://doi.org/10.12925/jkocs.2021.38.1.48>
16. Park, JH, Kang DY, Kang JM, Gwak NH, Kim CE, Lee MK. The association of faculty-student interaction, psychological well-being, and the image of nurses of nursing students on nursing professionalism in the COVID-19 pandemic.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22;28(1):101-112.
<https://doi.org/10.5977/jkasne.2022.28.1.101>
17. Lee OS, Lim JH. Image of nurse and nursing professionalism perceived of nursing students before and after their first clinical practice in the COVID-19 pandemic.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21;19(5):479-488.
<https://doi.org/10.14400/JDC.2021.19.5.479>
18. Lee MH, Park MS. Sense of coherence and academic stress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14;14(12):863-872.
<https://doi.org/10.5392/JKCA.2014.14.12.863>
19. Lee SR, Sohn YW. What are the strong predictors of academic achievement? -deliberate practice and grit.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2013; 10(3):349-366.
<https://doi.org/10.16983/kjsp.2013.10.3.349>
20. Lee SR. Nurse image, satisfaction of major effect on nursing professionalism of male students in nursing [master's thesis]. Gyeonggi-do: Ajou University; 2011. p.1-49.
21. Kim DH, Lee WJ, Kang MJ, Kang JY, Kim NR, Kim SY, et al. Relationships among nursing students' anxiety, communication skills, and nursing

- professionalism about on-campus clinical practice due to COVID-19. *Journal of Industrial Convergence*. 2022;20(10):9-16.
<https://doi.org/10.22678/JIC.2022.20.10.009>
22. Han MY. The relationship among ego-identity, role conflict, nursing professionalism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20;20(15):1017-1033.
<https://doi.org/10.22251/jlcci.2020.20.15.1017>
23. Seo MJ, Oh JJ.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on academic stress of nursing students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21;21(4):815-824.
<https://doi.org/10.5392/JKCA.2021.21.04.815>
24. Hong KS, Han JW. The effect of online classes due to COVID19 on academic stress: for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1. 2021;12(4):1973-1987.
<https://doi.org/10.22143/HSS21.12.4.140>
25. Won YK, Roh MY. The effect of health literacy education program on subjective health status, Health Interest and Health Literacy in Female College Students. *KPEAW*. 2021;35(2):91-103.
<https://doi.org/10.16915/jkapesgw.2021.6.35.2.91>
26. Kim GS, Yoon YJ. The influence of academic self-efficacy, self-resilience, and department satisfaction on subjective happines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2021;11(1):244-253.
<https://doi.org/10.22156/CS4SMB.2021.11.01.244>
27. Lee HW, Tak JH, Lee MR. The differences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big five personality factors and self-efficacy according to cluster types based on the grit.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2017;37(3):249-268.
<https://doi.org/10.18023/kjece.2017.37.3.012>
28. Park JS, Shin HJ. The effects of ego-resiliency enhancing program on ego-resiliency and empathy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2017;24(2):151-170.
<https://doi.org/10.22155/JFECE.24.2.151.170>
29. Jung TM, Kim KA. The influence of nursing professionalism,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nursing work environment of dedicated COVID-19 hospital nurse on person-centered car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Home Health Care Nursing*. 2022;29(2):165-174.
<https://doi.org/10.22705/jkashcn.2022.29.2.165>
30. Kim MJ, Kim MO. Factors influencing clinical competence in general hospital nurse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21;21(10):668-678.
<https://doi.org/10.5392/JKCA.2021.21.10.668>